

'실패는 두번째 기회... 재도전 응원해요'

'2019 실패박람회 in 전주'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술가 300여명 참여 실패사례 공모전 등 펼쳐져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경기전 광장과 풍남문광장 일원에서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9 실패박람회 in 전주'를 개최한다.

'실패는 두 번째 기회'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패박람회는 첫날 오후 7시 경기전 광장에서 전국단위 실패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로 이루어진 퍼포먼스와 실패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 등으로 채워지는 개막식으로 문을 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주가 문화관광도시인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꾸며 다른 실패박람회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패박람회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패사례 공모전'의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퍼포먼스, 영상상영, 당선자 공연 등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풍남문 광장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주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정책마당'

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실패박람회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재도전을 상담해주고, 창업·채무·대학진학·저소득일자리·경력단절 등의 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실패박람회에서는 국민숙의에 참여한 시각예술가들의 회화와 판화, 사진 등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실패 전시회 '드러내다'가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행사장 인근 바람골목과 차라리언더바, 교동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전시회 첫날에는 전주지역 실패공유단체인 독립생활자담이 운영하는 실패라디오도 진행된다.

'차라리언더바'에서 진행되는 릴레이포럼은 첫날부터 진행된 국민숙의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10가지 이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0일간의 과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는 민관 거버넌스 릴레이 토론회로 이뤄져 실패박람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100일 동안 준비한 과일 프로젝트는 오는 9월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종합 실패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전주시가 주최한 실패박람회 in 전주 현장방문이 28일 전주시 동문거리 바람골목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경박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다. 시는 실패박람회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200여명의 대학생 평가단도 구성·운영한다. 평가단은 실패박람회 각종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해 개인나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고 평가단이 작성한 2번의 설문조사는

실패박람회 개최 후 성과 분석에 활용된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실패박람회를 계기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과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했다. 한편, 실패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권역별로 강원,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이번 행사를 준비해왔다. /송효철 기자

'제1회 실버영화제' 개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제를 마련했다.

센터는 28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주실버영화제 및 센터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1회 전주실버영화제는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잊힌 감성을 일깨우고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김우석 감독의 '참외향기'와 한기중 감독의 '돼지의 최후' 등 노인들을 위한 영화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3회에 걸쳐 상영됐다. 또, 영화 상영에 앞서 백화기 LOB 필름 대표의 영화해설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이날 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효철 기자

덕진수영장, 30일 청년창업

플리마켓 '1%구멍가게' 운영

전주덕진수영장에서 오는 30일 청년창업 플리마켓 '1%구멍가게'가 열린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덕진수영장 로비와 고대 휴게공간에서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청년창업 셀러들의 저렴한 수공예품, 중고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가벼운 소비를 기반으로 한 '소소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의 취지며 수익금의 1%를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나눔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날 다니스 공물(대표 정다운), 허니목작, 소유의 옷장, at this moment(앤 도시 모먼트), 이리스토 등의 지역 청년창업 셀러들이 참가해 디퓨저와 미스트, 숙성 꿀, 유아 의류, 액세서리, 소품, 가죽 공예품, 여성의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사후관리

기업방문 경력단절예방 행사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28일 가이테크를 방문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이달의 여성우대기업'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여성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첫번째 행사를 진행한 가이테크는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를 통해 취업한 장기근속자 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오후 휴게시간을 이용, 기업대표 표를 포함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직장 적응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와 응원이 듬뿍 담긴 맛있는 간식을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네트워크 강화로 여성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업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성공이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에 대상으로 위암 4차 적정성평가와 유방암 6차 적정성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발표한 적정성평가는 2017년 한 해 동안 위암과 유방암 치료를 진행한 전국 각 204개와 1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전북대병원은 평가에서 위암은 100점 만점, 유방암은 만점에 가까운 99.78 점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김영태 기자

이사각 -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우리 선수단, 자랑스럽다"... '선수단 바보' 별명까지

전국소년체전서 전북, 역대 최고 성적

"우리 선수입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단입니다"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시작 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각 시·도 사무처장을 비롯해 지인 등을 만날때마다 '전북 선수단'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밭 바보'·'아들 바보'처럼 이른바 '선수단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린 선수단을 격려하고 축하해왔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2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30개 등 총 87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대회 첫날부터 쾌조의 경기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한 전북 선수단이 대회 마지막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금메달 32개. 이는 지난 2010년 금메달 25개를 획득한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넘어선 기록이다.

"학부모 사랑 있어 가능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큰 자신감을 얻어 기뻐
체전준비단 등에 감사"

최형원 사무처장은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번 결과가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품성만 메달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어린 선수들의 투혼과 지도



최형원 사무처장

자의 헌신은 물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비롯한 도 내 각 시군, 각급 학교장, 도 체육회간의 원활한 소통의 산물이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수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최 처장은 조금이나마 전북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도 체육회 종합상황실이 차려진 익산에 내내 머물며 도내 14개 시·군의 각 경기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도는 강행군을 펼쳤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고창과 정읍 일정을 오전에 모두 소화한 뒤 시도 사무처장 회의(익산)에 참석, 그리고 무주와 진안, 전주,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특히 최 처장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이번 대회를 높게 평가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활짝 웃었다.

체육종목과 기록종목 등 고르게 메달을 획득했고 근대3종과 사격 등 비인기종목과 그동안 침체됐던 종목에서 대거 메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최 처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민국 미래 체육 꿈나무 양성의 산실이다"며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등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보여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도 체전준비단과 주 개최지인 익산시,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삼삼오오 인생나눔'

내달 12일까지 참여그룹 모집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6월 12일까지 50세 이상의 장년·노년 세대들의 자기 주도적 인문 활동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활동을 발굴·장려하기 위한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참여그룹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50세 이상이 주체가 돼 삶에 축적된 인문적 지식, 기술, 재능, 지혜를 다양한 세대와 공유하며,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인문 확산과 자기현장 발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체득한 지식을 이웃, 친구, 후속세대 등과 학습하고 교류하는 활동, ▲ 삶의 영역에서 체득한 생활기술과 재능을 공유하는 활동, ▲ 공동체(마을, 세대 등)회복, 세대 공감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거주하며 50세 이상이 50%이상 소그룹(3~5명)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 45개 그룹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그룹 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중국 소주시와 우호협력 확대 논의

전주시와 국제자매도시인 리아핑(李亞平) 중국 강소성 소주시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시장을 비롯한 소주시 대표단 10여 명이 전주시와의 우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소주시 대표단은 28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시장과 양 도시간 국제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양 도시는 1996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 문화·예술교류에서 바둑과 같은 체육교류까지 그 영역을 넓혀 친밀감을 쌓고 우호를 높여가고 있다"며, "곤곡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소주시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

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는 전주시는 전통과 가치를 잘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한국과 중국의 대표문화 도시"라고 말했다.

이에 리아핑 시장은 "소주와 전주는 그간 행정뿐만 아니라 인문교류, 서예전시회, 한지공예, 바둑대회 등 다양한 교류를 해왔다"며, "양 도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주시 시장단은 시청 방문에 이어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비빔밥과 한정식을 맛보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의 맛을 체험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전주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소주시 대표단은 28일 전주시청 시장실을 찾아 전주시와의 국제 우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해해충 박멸... 전주시, 여름철 방역 대책 가동

방역장비 193대 등 투입 진드기·모기 등 처리

내달 3일 발대식 후 9월 27일까지 4개월간 소독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위해 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이 실시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르게 찾아온 더위와 말라리아·일본뇌염·지카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해충 방역소독을 위해 '2019년 하절기 방역소독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역장비 193대 △방역차량 10대 △포충기 308대를 투입해 진드기·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없는 전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는 오는 6월 3일 하계 방역소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각 동 주민센터에 1~2명씩 총 55명의 방역 소독 근무자를 배치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의 하수구와 쓰레기 수거함 등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모기의 특성에 맞춰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차량 9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만성지구·에로시티·효천지구·혁신도시 등 대단지 아파트 지역과 도심 내 하천, 구도심 등에 집중 배치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미립연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생해충의 자율적인 방제를 위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가열 연무기 40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116개 공원 내에 설치된 포충기를 가동해

공원 지역 내 친환경 방역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6대를 점검 가동할 계획이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작동 버튼을 누른 후 분사기의 손잡이를 당기면 분사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열풍과 목을 제외한 피부나 겹옷에 10초가 뿌리면 약시 간정도 효과가 지속돼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감소시킨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민약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